

조사연구 : 제 3 차원의 사서직

연세 의대

이 성 의

Research: The Third Dimension of Librarianship

Sung-Eui Lee

요 약

고도로 발달된 컴퓨터 기술은 자료의 급속한 축적을 가져왔다. 이 현상은 “무지의 폭발(ignorance explosion)”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할 정도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정보폭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정보 수집 과정에서 정보의 질보다 양이, 정보의 신뢰도와 타당도보다는 정보전달의 속도가 중요시되고 있다는 것은 미래의 사서활동에 하나의 도전이 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두 가지의 논의가 있다. 첫째, 기술(technology)과 情報歷(information age)과의 관계이다. 사서들은 정보 수집에 이용되는 방법론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이 방법론은 정보를 수집할 때 나타나는 가치 판단을 포함하는 것이라야 한다. 둘째, 미래를 위하여 의학사서직이라는 전문직을 마련하는 것이다. 전문직에는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직 요원들 각자의 개별적인 노력에 의해서만이 인간에 대한 인식과 인간의 가치에 대한 존엄성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조사연구는 소홀히 다루어온 반면 기술에 초점을 맞춘 평가 연구는 많이 시도되어 왔다.

저자에 의하면 의학 사서직을 위한 총체적인 전문직 모형(total professional model)에는 교육, 실무 활동 뿐만 아니라 조사 연구가 마땅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다. NIH(National Institute of Health)가 연구자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과 비슷한 형태의 NLM(National Library of Medicine)도 박사과정의 도서관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립 도서관 협회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연방정부의 지원이나 장학금의 형식으로 해서 도서관 연구는 생명력 있고 효과적인 3차원의 전문직 모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서직에서 3차원의 전문직 모형이란 정보저장과 서비스의 전통적인 개념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再정의 하고 그러므로써 다가오는 시대에 의학사서직의 영역에 새로운 타당성을 부여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10년 동안 의학 사서로서의 우리들의 이미지는 컴퓨터화된 데이터 베이스(data base), 온-라인 검색(on-line retrieval), 그리고 새로운 정보자료 공동 활용 리소스놀로지(resource-sharing technologies)의 출현으로 고조되어 왔다. 이러한 발달들이 박수를 받고 있는 반면에 이들 기계화는 인간의 의사 결정 과정과 그것이 정보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등 우리의 행위에서 인간적인 측면을 외면해 왔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들의 전문직 모임이나 도서관 학교에서 좀처럼 발표된 적이 없다.

이 논문은 1979년 6월 4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제 79차 의학도서관협회 총회”에서 연설한 주제 발표문이다.

1. 저자 : Love, Erika
Director
Medical Center Library
University of New Mexico
Albuquerque, New Mexico
2. 자료명 : Bulletin of Medical Library Association,
Vol.68, No.1, January 1980.

우리의 지식 경제

오늘날 우리 사회가 방대한 양의 정보에 접해 있다는 것을 반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10년 전에 「Drucher」⁽¹⁾는 1970년대 후반에는 지식 경제가 전체 총 국민 생산량의 $\frac{1}{2}$ 에 달할 것이라는 데에 덧붙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즉 지식 노동자들의 요구는 끊임없이 이어져 만족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이는 모든 생산품과 같이 지식도 그 자체의 요구를 계속해서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Drucher」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우리는 잘 훈련되고 숙련된 의료 전문가 200만명이 필요하게 될 것이며, 특히 이들의 기술은 지식에 바탕을 두고 습득된 기술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미래의 행위나 결과에 대한 토론은 새로운 세계 경제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 자원이 될 것이다. 정치적인 설득에도 불구하고 정보 때문에 똑같은 경제적 욕구, 열망, 요구등이 지역적 언어적인 한계에 관계없이 전 세계에 두루 퍼져 있다. 「Drucher」는 우리들 시대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특성보다는 지식이 통제 자원(controlling resource)으로 되고 있다고 했으며, 그는 정보를 전기(electricity)와 같은 것, 다시 말해서 컴퓨터 기술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정실 노동을 위한 에너지의 형태라고 생각하고 있다.

「Drucher」가 예견하였듯이 지식은 實로 현대 사회의 기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예측하지 못했던 것은 이러한 정보폭발이 종종 인간의 발달을 촉진시켜 주기 보다는 오히려 쇠퇴하게 할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은 복합 사회이다. 게다가 정보의 과잉 생산으로 因하여 우리들에게 옛날 우리의 선조들이 했듯이 우리들의 환경을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설명해 주기 보다는 2차적인 정보자료를 통해서 더 많이 설명해 주도록 강요하고 있다.⁽²⁾ 약 1세기 前에는 인간은 짧은 일생 동안에 세계의 가능한 지식의 대부분을 습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量보다

더 많은 자료가 있다. 사실상 정보포발은 무지의 폭발에 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인간의 정보를 습득하여 처리하는 생물학적 능력은 변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생산품, 봉사, 상품, 과정, 자원 등등 여러가지로 불리울 수 있는 정보는 음식물이나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구별될 수 있는데 이는 정보가 공급 및 배포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음식물과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면, 반면에 정보는 과잉 축적되어 정보배포에 문제가 있게 된다. 많은 나라의 국민들이 다른 자원의 결핍을 느끼는 것과 똑같은 정도로 정보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 더구나 어떤 사람들은 알고 다른 사람들은 아직 이용해 보지도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이 눈에 뜨일 정도라면 이는 소위 “정보 전달”이라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정보전달 : 속도와 질

정보가 어떻게 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 되어질까? 하는 의문이 최근 「Branscomb」의 “Information: the ultimate frontier”라는 논문에서 제기되었다,⁽³⁾ 「Branscomb」, IBM 회사의 부사장이며 주임 과학자인 그는 정보기술이 2,000년대에 이룩될 것이며 그때에는 세계 인구의 $\frac{1}{2}$ 이 지식 생산업에 종사할 것이고 이 숫자는 금세기 末에 달할 숫자의 $\frac{1}{8}$ 밖에 안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Branscomb」은 실리콘(silicon) 젤리움 아스나이드(gallium arsenide), 그리고 다른 반도체(semiconductors)들은 자기 다른 원리로 만들어진 회로(circuitry)로 대체되어 자료 기억 능력이 16,000인의 두뇌와 맞먹는 매우 조그맣고 빠른 컴퓨터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스스로 응답할 수 있는(self-replicate) 능력을 가진 3가지 차원의 기억 장치가 100년내에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더우기, 정보를 문서(documents)라는 용어로 생각하기 보다는 섬유광학(fiber optics)이나 레이저공학(laser technology)의 발달로 말미암아 1초에 수 백만 비트(bits)의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전달로 생각하게 한다. 「Branscomb」에 의하면 레이저공

학은 결국 오늘날의 광학섬유 시스템보다 1억배 정도의 가시 레이저 광선(visible laser light)의 용량을 낼수 있어서 1초에 1조권의 책의 비율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한다.

분명히, 이러한 버저닝 테크놀로지(burgeoning technologies)는 인간을 통제하거나 혼란시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기계화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정보가 빨리 전달되기 때문에 정보를 재창조할 수 있고 또 절약할 수 있으므로 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은 도서관의 정보 축적은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Branscomb」이 기술한 바와 같은 정보전달과 정보처리의 속도가 “무지의 폭발”을 해결해 줄지,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부차적이고 새로운 기술을 얻을 수 있을런지에는 의심이 간다.

더 빠른 정보처리 그 자체가 정보의 질이나 신뢰성을 향상시켜 주지는 못한다. 수 많은 정보가 종종 정보의 질이나 타당성에 관계없이 끊임없이 발달된 전기 시스템에 의하여 전달된다. 마찬가지로 상한 음식물과 같이 가치가 없는 정보에는 유익한 영양가는 거의 없으며 그러한 정보는 심지어 우리에게 해를 주며 우리에게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가치 판단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⁴⁾

1948년 New York State Publisher's Association의 회의에서 「Sülzberger」는 정보와 가치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분명히 인간의 판단은 인간이 근거로 하고 있는 정보보다 더 나을 수가 없다. 인간에게 진실을 알려 주어라. 그러면 인간이 계속 그릇되게 가더라도 언젠가는 그는 올바르게 될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인간에게 새로운 것을 주지 않고 단지 왜곡되고 미완성의 자료만을 제공해 준다면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 과정은 불가능해 질 것이고 인간을 인간 이하의 것으로 만들 것이다.»⁽⁵⁾

기술과 인간의 가치

그러므로 우리의 첫번째 관심은 기술과 정보력(情報歷)과의 관계이다. 정보서비스 제공자로서 사서들은 자료가 이같은 체계로 처리되는 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자료 수집에 이용되는 방법론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이들 자료 수집 활동에서 나타나는 가치 판단을 비판적으로 주시하여야 한다. 두번째 관심은 미래를 위하여 의학사서적이라는 전문직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의 전문직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전문직 요원들 각각의 개별적인 노력에 의해서만이 인간에 대한 인식과 인간의 가치에 대한 존엄성을 생겨나게 할 것이다.

우리 사서들은 “사람들은 왜 정보를 원하게 되며,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구하는가?” 그리고 또 “왜 사람들은 정보를 찾는데 실패할까?,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까?” 등등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단순한 의문들은 정보가 제공되었던 후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인가를 파악하고, 이용자로 하여금 도서관 및 정보 서비스에 대하여 좀 더 비판적인 소비자가 되도록 교육시키기 위하여 정보 소비자 즉 정보 이용자의 문제를 연구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현재의 서비스가 이용자의 요구에 일치되는지, 또는 이용자의 요구가 현재의 정보 서비스에 만족했는지를 물어보아야 한다. 그러나 정말로 어떻게 우리의 정보 시스템이 각기 다른 이용자의 요구에 응하게 될 수 있을까?

이는 인간의 본성에 의해 설명되어 질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이며 몇가지 기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 어떻게 사람들은 정보를 설명하고 이해할까?
2.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서 무엇이 알려져 있고 정보는 아려한 과정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까?
3. 기존의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질이 사회를 지적이고 책임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까?

모든 종류의 이용자 연구(user study)는 지난 20여년 동안 계속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연구 결과는 매년 수백 만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운영되고 있는 정보 시스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종종 대부분의 새로운 시스템이 상상된 이용자의 요구와 거호에 따라 확실히 못한 가정에 의해 개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요구를 평가하기 위한 노력은 주로 시스템 기술에 중점을 두고 인간적인 측면은 무시되었다.

예를들면, MEDLAS 데이터 베이스는 10여년 동안 의학 정보 서비스의 소스로 매우 자주 이용되어 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까지, 시스템 변경을 위한 피드백(feedback)을 제공할 이용자의 특성을 규명한 연구는 없다. INDEX MEDICUS와 MEDLINE이 거의 같은 편집 범위로 잡지들이 수록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연구도 없다. 이러한 두 종류의 서비스가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이들 두 종류의 광범위하게 다른 정보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사서들을 훈련시킬 때, 우리는 상당한 량의 정보가 “우연히” 찾아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때때로, 우리들은 몇달 전 혹은 몇년 전에 얼핏 본 기사를 우연하게 회상해 내어 지금의 참고 질문에 적용시킬 수 있게 되기도 한다. 그러한 일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므로 “우연히 발견된”이라는 말은 실로 하나의 사건이며, 이러한 개개인의 정보셋(pool)이 진요할 때 이용되기까지는 잠재적인 정보소스로 간주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포함하여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행위에 관하여 무엇을 알고 있는가?

우리는 도서관학 및 정보과학의 지식 기반을 굳힐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정보를 어떻게 다루는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용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하므로써 새로운 도전자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 도서관학, 특히 도서관 연구에 새로운 경험을 쌓아줄 것이다.

실무자의 상태

역사적으로 사서들은 실무자(practitioner)들이며, 이들 실무자들은 他 직종에서와 마찬가지로 연구할 시간이 별로 없다. 일반 의사들이 연구할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실무 사서들도 꼭 같은 경우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점은, 의과대학은 전통적으로 의학 연구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들 사서를 전문인으로써 육성하는데 실패한 것은 도서관 학교 교육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사서 교육은 전환기를 맞은 것이다. 최근의 한 논문에서 「Wilson」⁽⁷⁾은 사서들은 다음의 세가지 필수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지식 기반을 확장시켜야 하는 도전을 받고 있다고 했다.

1. 실무 지침서를 편찬하므로써
2. 다른 분야의 지식을 통하여
3.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넓힘으로써

그녀는 몇몇의 새로운 지식은 우리 도서관의 실무 영역에서 얻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 이에 대한 주요한 책임은 도서관 학교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전문직은 연구가 이론가가 개발될 때만이 주요한 발전이 이룩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최근 MLA 후원으로 개최된 「Allerton Invitational Conference on Education for Health Science Librarianship」에서 어떤 발표자나 토론자도 수준높은 도서관 연구가의 결핍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또한 우리 전문직의 지속적인 활력화의 수단으로 도서관 연구가의 교육에 대하여 지적한 사람도 없었다. 주제 발표자 혼자만이 그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의학사서직도 다른 분야의 훈련자들이 하듯이 一部는 실무자를 위하여 나머지 一部는 연구자를 위한 운영으로 二元化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⁸⁾

지난해 Janet Doe Lecture에서 「Zachert」는 의학 사서들의 지식 지향성(knowledge orientation)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다.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지식이 지금 우리 주변의 특징이 되고 있다. 즉 우리는 체계적이고 생명력 있는 연구를 통해서 지식을 얻는 것을 바람직한 하나의 행위 모형으로써 인정하기 때문에 나는 지식 지향성을 우리의 가치들 중의 하나로 인정해 왔다”고 말하고 있다.⁽⁹⁾

이러한 지식 지향성이 우리 전문직을 향한 우리들의 태도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는가?⁽¹⁰⁾

도서관학에서 연구자의 교육과 실무 사서의 교육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적어도 5,000명의 사서들이 매년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Ph. D. 학위를 얻고 도서관 연구에 종사하게 되는가? 얼마나 많은 장학금이 도서관학 박사 과정 학생들에게 주어지는가? 우리 국립 도서관 협회는 연구자들을 교육시킬 기회를 만들기 위하여 이제까지 해온 것이 무엇인가?

연구 능력의 개발

우리는 의학 사서로써 어떤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 전문직의 미래를 위한 活性的인 지식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도서관에 관계된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MLA의 역할을 연구할 Hoc Committe를 구성하였다. 자료가 쌓이므로 해서 국립도서관 협회는 연구의 가치를 인정하기는 하면서도 능동적으로 그 일을 보조해 오지 못했다는 것이 명백하다. 우리 자신의 장학금은 전통적으로 의학 도서관 사서직의 연구자들을 교육시키는 중요한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 놓고 실무자들이 석사학위 수준의 학위를 얻는 데에만 도움을 주어왔다. 그러나 우리 전문직의 미래가 사서직의 지적 기반을 육성하는 데에 달려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아마도 조사 연구 지향적인 교육을 개발시키는 많은 문제들 중의 하나는 선행자들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도서관학은 경영학에서 심리학에 이르기 까지 커뮤니케이션에서 컴퓨터 과학에 이르기까지 여러 학문 분야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과목들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경향은 유익한 것 같다. 왜냐하면 예들들어 많은 훈련들이 새롭고 명백한 지식을 창조해 내는 데서, 기초 임상학의 넓은 영역을 포함하는 의학 실습 중에 행해져야 하기 때문이다.⁽¹¹⁾

그러나 의학과 도서관학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의사, 보건의료원, 그리고 생의학자 같은 사람들은 새롭고 확대된 지식을 통해서 그리고 세계의 많은 기관에서 대량으로 조사 연구한 결과로 일반화된 지식들을 통하여 활발한 도움을 얻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 중 가장 큰 기관인 NIH는 수 백개의 연구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보전달의 문제가 학자들에게 계속 요구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상 의사나 의학도들 모두 그들 전문직의 지식 기반은 조직화된 연구를 통하여 끊임없이 주의깊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초보 실무자를 위한 지식 기반으로 간주되고 있는 의과대학 교과과정의 반감기는 약 5년이다. 현재 초보 실무자를 위한 지식 기반의 반감기는 얼마일까? 또, 그 문제에 관하여 도서관 학교 교과과정은 어떤가?

의학 사서의 눈에 NLM은 NIH와 서로 대응되는 기구로 보인다. NIH는 임상 의사들에게 그들의 연구를 보조해 주는데 NLM은 실무사서들에게 무엇을 해주는가? NIH에 의해서 제공받는 연구 경력 개발금(Research Career Development Award)은 Ph.D.나 M.D. 학위를 요구하는 분야의 후보자에게 수여된다.^(12,13) 마지막 학위로 석사 학위가 요구되고 있는 사서들은 제외된다. 여지껏 NLM은 우리의 지식 기반을 강화시키는 데의 원동력이 되는 의학 사서직의 연구자들 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Ph.D.를 하는 중견사서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해 오지는 않았다. 나는 NLM이 기존의 비사서직 연구 종사자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사서들에게 박사 과정에 들어가도록 연구 보조금을 주는 것이 우리 전문직 사서들의 연구 능력을 개발시키는 데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한다.⁽¹⁴⁾

똑같은 실례로, 고등 교육 법령(Higher Education Act)에 나타난 다른 연방 프로그램들 역

시 과거로부터 도서관학과 정보과학에 수 백달
러적 연구비를 제공해 왔으나 이것이 도서관 연
구자들을 훈련시키는 자극제가 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사실상 단순히 어떤 지
식 기반 없이 수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 연구를
하고, “새롭고 혁신적인 도서관 및 정보 서비스
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기재들”을 개발시키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
처럼 생각되었다.

총체적인 전문직 모형을 위하여

대부분의 우리들에게 도서관 연구는 다른 많
은 관심거리에서 가려져 거리가 먼 문제로 되어
왔다. 정치적인 문제도 있다. 연방 재정의 경쟁,
보건 교육에 관한 근본적인 노력, 등등 국내의
법규도 있다. 우리는 관심있는 전문적인 문제들,
즉 다른 종류의 도서관 협회들, 그리고 정보 산
업 등에 관여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회원을 확
보하기 위하여 가입 캠페인을 加速化할 필요가
있고 MLA의 재정적 기반을 굳히기 爲한 새로
운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전문적인 관심거리를 다루는데 있어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의사 결정을 하여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 프로그램이나 목표를 위해서는
로비스트(lobbyists)나 행동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조사 연구 없이—이론가 없이—역동적
이고 새로운 지식 기반 없이 우리는 우리의 전

문직을 보호 유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들 자신이 미래를 향하여 프로펠라를 돌릴
연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식은 변화를 의미하고 가속화된 지식 수집
은 가속화된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들이 사서들에게 전보다 더욱 강력한 적응
력을 요구한다.⁽¹⁵⁾ 우리는 다양성, 유연성, 그
리고 다른 직업과의 경쟁, 등이 우리 사서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들임을 알아야만 한다.

우리는 조사 연구를 총체적인 전문직 모형의
일부로, 즉 도서관 교육, 도서관 실무와 함께
三元的인 사서직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껏 도서관 학교나 연방 기관들 모두 의학
사서직의 연구 잠재력을 개발시키는 데의 중요
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해온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연방 기관이나 의학 사서직 교육자들에
게 도서관 연구를 위하여 기초적인 기반을 마련
하는데 협동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오는 세대를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확신시켜야 한다. 이를 시작하는 것은 실무 사
서들인 우리들에게 달려 있다. 또한 파트너쉽을
갖고 지도력을 발휘하여 노력하는 것도 우리들
에게 달려 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